

국어 순화의 現實과 展望

金 敏 洙

(고려대 교수·국어학)

1

言語醇化는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을 순수하게 다듬는다는 뜻이므로, 그 醇化에는 순수하지 못한 요소를 숙아서 추방하는 작업이 따른다. 그러면, 言語에도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대개 우아한 醇正語에 대한 卑俗語, 전래하는 本來語에 대한 外來語가 순수하지 못한 語彙이며, 文體上으로는 文法에 어긋나거나 外來的인 표현도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言語醇化는 그 대상을 구분하는 학문적 작업으로 시작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추방하느냐 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醇化(purism)는 아무래도 인간의 意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즉, 卑俗語는 상대를 의식하는 한, 누구나 禮節意識으로 자제되는 반면, 外來語는 그보다도 의식적인 自我意識이 아니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래어는 들어서 新鮮感을 느끼게 하고, 말할 때에는 은연히 새로운 지식을 표현하고 싶은 본능적 意識까지 작용하여 世態의 변화와 함께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에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다짐하지 않고서 그것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外來語는 외국에서 수입되었어도 國語語彙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外國語와 구별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본 외래어는 귀화하는 단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가령, ‘붓, 먹’ 같은 漢語系나 ‘부처’ 같은 梵語系는 외래어라도 외래어라고 구별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외래어라도 워낙 수입된 세월이 오래고 널리 쓰여 친근해지면 본래어처럼 익숙하게 귀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言語醇化가 외래어에 집중되는 경향이냐, 아무리 강경한 醇化主義者라도 이런 말까지 추방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周時經(1897)도 언급한 바와 같이 ‘門, 房, 飲食, 學校’와 같은 말도 분명히 漢語系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말이다. 漢字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말은 알고 사용하는 만큼, 역시 외래어라고 느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 ‘人間’이나 ‘땅속’과 ‘地下’ 같은 말을 비교한다면 本來語와 漢字語로 구분되겠지만, 실상은 그 한자어가 본래어로 대치되기는 어렵다. 가령,

- 1) 人間 : 人間界, 人間苦, 人間工學, 人間觀, 人間機械, 人間大事, 人間味, 人間性, 人間愛, 人間的, ……
- 2) 사람 : 사람界, 사람苦, 사람工學, 사람觀, 사람機械, 사람大事, 사람味, 사람性, 사람愛, 사람의, ……
- 3) 地下 : 地下工作, 地下道, 地下水, 地下植物, 地下室, 地下運動, 地下資源, 地下鐵, 地下測量, 地下케이블, ……
- 4) 땅속 : 땅속工作, 땅속道, 땅속水, 땅속植物, 땅속室, 땅속運動, 땅속資源, 땅속鐵, 땅속測量, 땅속케이블, ……

등에서 보듯이, 양자는 同義語가 아님을 실감하며, 거의 相補的으로 양립하는 별개의 語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어의 한자어를 놓고 보면, 그 한자어는 순화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그것을 국어가 아니라고 혐오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자어는 외래어 사전에도 수록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한자와 한자어를 추방해야 국어 순화가 된다고 강변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이념 아래 일으킨 醇化運動은 실패를 거듭하고, 남긴 것은 가령

- 5) 隔月刊→달걸러 내기, 攻堅戰→치기 되치기, 恐妻家→아내 무섭장이, 僑胞→나그네 동포, 禁欲生活→욕심 누르기 생활, 輸入高→들여옴 돈머리, 汚職→구실 흐리기, 日刊→나날내기(1962. 회보)
- 6) 佛蘭西→프랑스, 西班牙→에스파냐, 濠洲→오스트레일리아, 東京→도쿄, 大阪→오사카, 九州→규슈, 豐田秀吉→도요토미 히메요시, 加藤清正→가토 기요타사, 北京→베이징, 吉林→지린, 周恩來→저우 언라이, 鄧小平→덩 샤오팅, 李光耀→리 판유 (1986. 외래어 표기법)

등과 같은 5) 어색한 新造語, 6) 새로운 외래어의 量産이다. 그것은 대중에게 수용되기 어렵거니와, 그 순화의 차원에서도 확실히 역행하는 운동이다.

西歐에서는 文藝復興의 반동으로 일어난 16세기 宗教改革의 여파로 醇化主義者의 國粹化運動이 일어났다. 그것은 라틴語와 희랍語의 추방이었는데, 英國에서는 이른바 게르만狂徒(Germanophiles)에 의하여 혐오의 대상이 된 佛語系 語彙를 자랑스러운 게르만系로 복귀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어에서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近代化가 뒤늦은 國語에서 甲午更張 이후 시작된 그러한 흐름이 광신적 양상을 노정시키게 된 것은 어쩌면 저들과 대조적 흐름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이다.

우선 로마字가 國籍을 상실해서 영어에서 외국 문자라고 하지 않듯이, 동양에서는 한자가 로마자와 유사하다. 또한, 영어에서 라틴어계가 추방되지 않듯이, 국어에서는 한자어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그 한자어는 외래어와 구별되는 특이한 존재라고 하겠다. 물론 영어에 古典語系 難解語가 있듯이, 국어에도 난해한 漢字語가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 괄호 속과 같이 이해되는 말을 선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다.

- 7) 甲長(同甲), 結舌(緘口), 契分(親分), 古終(木花), 棄絕(破門), 覃思(深思), 挽執(挽留), 末造(末世), 盤費(路資), 伴行(同行), 發港(出港), 犯意(故意), 福票(福券), 書肆(書店), 世嗣(後孫), 宦海(官界)
- 8) 家鴨(집오리), 加衣(책가위), 黔鰲(기미), 堪塌(도가니), 杭洞(방고래), 粳米(넙쌀), 羹汁(국국물), 鋸屑(톱밥), 缺臂(언청이), 溪川(시내), 串柿(곶감), 交刀(가위), 鮫膚(소름), 蚯蚓(지렁이), 菲菜(부추)

말이 어렵다는 것은 흔히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쓰이지 않기 때문에 흔히 쓰지 않겠지만,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인 語彙選擇의 소관이다. 개인은 누구나 理解語彙와 이보다 폭이 좁은 表現語彙를 갖고 있다. 어려운 말은 그 理解語彙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나, 그 세 단계의 폭은 個人差가 많다. 가령, 오늘날 20대는 '俊秀(하다)'라는 말을 表現語彙로 흔히 사용하는데, 60대인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나의 이해 어휘라는 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쓰지는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단계의 차이에 이와 같이 世代差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難解語가 세대에 따라서는 표현 어휘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즉

난해어란 것이 제층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률적인 구분이 어려움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의 정리라는 차원에서는 그 구분이 요구되고 있고, 긍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광범한 頻度調査의 결과를 원용하는 일이겠으나, 社會言語學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사이 政府次元에서 1948년 國語淨化委員會의 ‘우리말 도로찾기’나 1962년 한글專用特別審議會의 ‘회보’, 1976년 국어 심의회와 국어 순화 운동 협의회 등의 ‘국어 순화 자료’ 등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文敎部에서 주관한 이 운동은 한자어 정리의 원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버릴 것과 계속 사용할 것의 구분이 없다. 가령, 그 ‘자료’에서만도

- 9) 價格(값), 可觀(불만함), 家內(집안), 假面(탈), 加害(해침, 해를 끼침), 各自(저마다, 제각기, 제각각), 間隔(사이, 틈), 甘酒(단술), 降水量(물량), 概說(대충 설명), 改正(고침), 揭示板(알림판), 激務(힘든일, 고된일), 結末(끝맺음, 끝장)
- 10) 架空의(현실성 없는), 可能한(수 있는), 假令(이름테면), 可하다(옳다, 좋다), 懇請하다(간절히 바라다), 强要하다(억지로 요구하다), 強制로(억지로), 開催하다(열다), 拒絕하다(몰리치다), 堅實하다(튼튼하다), 輕率하다(가볍다), 故意로(일부러)

등은 거의 일반의 表現語彙라고 여겨져서, 작은 문제가 아니다. 불과 8면 분량에서 이만큼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자어는 거의 버리라고 해도 좀처럼 버려지지 않을 말이다. 본래어와 같이 너무 친근하고, 위 한자어와 그 바꾼 말과의 관계가 이 글머리에서 지적했듯이 相補的으로 양립되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러달라고 짓거나 고친 이름일 것이다. 사람, 마을, 거리, 건물, 단체, 상품 등 명명하거나 개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부르라는 대로 부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얼마든지 뜻대로 本來語로 짓거나 바꾼다고 해도 성취될 것이다.

로 순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日帝殘虐의 一掃라는 차원에서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이념이다. 일제하의 쓰라린 과거를 생각할 때에 아직도 그 잔재를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民族的自尊心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그 성패는 우리의 주체적 의식, 굳건한 의지에 달려 있다. 물론 존재할 가치가 없는 日語殘虐와 외국어로서의 일본어의 가치와는 구분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과업이다. 첫번째는 壬辰倭亂 당시 1593년 10월에 환도하여 민간에 퍼진 彎夷讐賊之音을 일소하라는 倭語禁止令이 그것이었다. 어찌면, '가게수리(왜계), 기사미(切煙草), 냄비(그릇), 담바구(담배)' 같은 말이 그 잔재일지도 모른다. 첫번째는 불과 1년 반 침략당한 결과였지만, 두 번째는 반세기나 유린당한 상처인 만큼, 그 치유가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 역사상 중요한 近代化의 시기 50년에 걸쳤고, 침투된 그 日語의 오염은 너무 깊고 심했다.

그런데, 그 日語殘虐를 자세히 검토하면, 대체로 日本音語와 漢字音語로 양분되고, 후자는 原語로 보아 訓讀語와 音讀語로 구분된다. 약간의 예를 들면,

- 11) 日語系 { (1) 日本音語: 곤로(풍로), 메끼(도금), 쇼부(승부), 오야(두목)
 漢字 { (2) 訓讀語: 內譯(명세), 待合室(휴게실), 赤字(결손)
 音語 { (3) 音讀語: 當番(入番), 上陸(下陸), 曖昧(모호)

등과 같은 세 종류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1)이요, 그 다음이 (2)에 속하는 말이다. 이들이 純日語임에 대하여 (3)은 그래도 한자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에도 '曖昧'처럼 순화해야 할 것이 있지만, (1)은 기어코 일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2)는 필요한 일부를, (3)은 意味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訓讀語와 音讀語에서 버릴 것과 계속 사용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漢字語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近代化 이후의 新文物에 관한 명칭은 선택해서 수용하는 것과 같은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가령, '汽車, 電話, 水道, 病院, 議會, 發明, 品詞, 哲學, 化學' 등과 같은 漢字語를 추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능한 것은 거족적 운동을 통하여 당대에 부하된 과업으로 인식하고 기어코 추방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은 새로운 日語의 침입이다. 新時代에 접어들

어 日本에서 ‘團地’와 같은 新語가 수입되는 것은 도리가 없다고 하되, 解放後 日本政府에서 새로 제정한 漢字體와 代用字가 無意識의 탓으로 이 땅에서 횡행한다는 것은 民族的 矜持로 보아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 漢字體는 저들이 1949년에 정한 略字이며, 특히 代用字라는 것은 저들이 1946년에 정한 當用漢字 1850자에 빠진 글자 대신에 저들의 음과 같은 다른 글자로 대치하여 저들이 편하게 쓰는 漢字다.

12) 壞滅(←潰滅), 關數(←函數), 決起(←蹶起), 廣報(←弘報), 高揚(←昂揚), 散水(←撒水), 死體(←屍體), 障害(←障礙), 總合(←綜合), 了解(←諒解)

13) 欠(←缺), 腦(←腦), 圖(←圖), 辺(←邊), 円(←圓), 圀(←圀), 伝(←傳), 沢(←澤), 闘(←鬪), 纖(←纖)

위 예에서 특히 12) 代用字를 쓴 漢字語는 기이하게 만든 日本語이며, 우리 發音으로는 엉뚱한 말이다. 13) 字體도 특이하게 만든 日本字體다. 말하자면, 이들은 戰後에 새로 만든 日本式이다. 그것이 독립국인 우리나라에서 거침없이 횡행한다는 것은 즉 日本政府의 內閣告示가 국내 도처에서 백주에 뼈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분통한 일이다. 그러한 원인을 가려서 근본부터 봉쇄해야 했었는데, 日本文物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면서 意識조차 없었다는 것은 더욱 통탄할 노릇이다.

4

外來語를 수용할 것인가 추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言語醇化를 정책으로 세운 나라에서는 그 정책에 따라 추방해야 한다. 그 방법은 첫째로 같은 우리말이 있는 것은 운동을 통하여 바꾸어야 하고, 둘째로 없는 것은 같은 우리말을 힘써 찾아내야 한다. 그 작업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성적인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저히 추방되지 않는 것은 發音을 다듬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外來語의 標準發音과 그 表記가 문제된다.

위에서 外來語가 國語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그 發音이 國語의 音韻體系 안에 있음을 말한다. 즉, 우리말다운 音型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外國語와 外來語의 차이가 우선 이러한 發音에 있기 때문에, 外來語는 우리말다운 發音으로 標準語의 차원에서 사정되어야 한다. 우리말다운

發音이란 가령

14) ① 國語→② 外國語→③ 國語

(미스 김)→Miss Kim[mis kim]

미스 김→미스 김

(보너스)→bonus[bónəs]

보우너스→보너스

쌍가마→ssangama[séŋgma]

생그머→쌍가마

등과 같이 ②가 ③으로 바뀐 것인데, 그 原理는 우리말 ‘쌍가마’가 英語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말로 들어올 경우로 설명된다. 즉, ‘생그머’보다 ‘쌍가마’가 더 우리말답다는 것이다.

이 原理는 당연히 異論이 있기 어렵고, 그 基準이 선명해서 실제의 혼돈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原音主義의 止揚이다. 어쭙잖게 外國語 發音을 흉내내려는 原音轉寫를 버리자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오늘의 그릇된 原音主義는 더 많은 是正을 필요로 하는데, 말하자면

15) 母音의 發音과 表記

데이타(data)→레이타, 액세서리(accessory)→악세사리, 케이블(cable)→케이불, 지프(jeep)→젍(차), 초콜릿(chocolate)→초코렛, 배터리(battery)→바테라

16) 子音의 發音과 表記

가스(gas)→까스, 달러(dollar)→달라, 배지(badge)→뻬찌, 사이렌(siren)→싸이렌, 잼(jam)→젼, 스미스(Smith)→스미드, 알칼리(alkali)→알카리, 셔츠(shirts)→셔쓰

17) 子音同化的 發音과 表記

햄릿(Hamlet)→하므렛, 헨리(Henley)→헬리, 북메이커(bookmaker)[북메이커], 컵라면(cup-laomien)[퀸나면], 잭나이프(jackknife)→쩍나이프[쨍나이프], 스포츠(sportnews)→스포트뉴스, 센티미터(centimeter)→쎄치메타

등과 같은 것이다. 이 속에는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國語音韻의 觀念과 규칙을 반영하고 타당한 慣用을 살려 우리 말다운 發音을 실현시키자는 방안이다. 이것은 즉 外來語에 대한 主體性을 회복하는 길이다.

특히 英語의 ‘th’ 發音은 전통적인 우리의 觀念이 ㄷ이나 ㅈ으로 알려졌

다. 朝鮮語學會에서 日帝下에 外來語 表記法을 작성할 적에 그 위원들이 그런 합의를 보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池錫永 注釋(1908), '兒學編'에 나타난 것에도 편의상 한글의 부호를 삭제하면

18) [θ] 드로트(throat), 파드(path), 쓰리(three), 이어츠(earth), 디크와인(thick wine)—지크(thick)

[ð] 댓(that), 프아저(father), 피더(feather)

등과 같다. 다만, 우리 觀念에 없는 無聲音([θ])과 有聲音([ð])의 혼돈이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이 문헌에는 또한

19) [f] 푸트파드(foot path), 와이프(wife)

[l] 올납루(lamp), 으룸(room),

硬音 짜덴(garden), 썬쎝셀(dancing girl), 뽕크(bank), 썬(sun),

쎄너날(general)

등과 같은 예가 보인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사실을 얼마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회복시킬 것은 日本語의 發音이다. 그것은 이른바 濁音과 清音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그 전통적인 觀念은 역시 문헌에서

20) 濁音의 發音과 表記

伊路波(1492): 합바(はば), 먼더(めで), 捷解新語(1676): 바까린데(ばかりで), 시땅가(したか), 모논자(ものぢゃ), 兒學編(1908): 악강가네(アカガネ)

등과 같이 [b](ば)는 ㄹㅂ으로, [d](で)는 ㄴㄷ으로, [g](が)는 ㅇㄱ으로 각각 발음하며 표기했다. [nabe]→남비→냄비, [tabako]→담바구→담배 등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이다. 또한, 清音도

21) 清音의 發音과 表記

伊路波(1492): 고코노(この), 후다(ふた), 捷解新語(1676): 기주카이(きつかい), ~시따(~した), 고쳐(こち), 倭語類解(1701년경): 간고구(かんこく), 기다(きた), 兒學編(1908): 욱기(ユキ), 아다마(アタマ), 도모닷지(トモタチ)

등과 같이 [k](こかくき)는 ㄱ ㅋ, [t](たとち)는 ㄷ ㅌ이었고, 現行처럼 간접으로 英語表記를 옮긴 有氣音(ㄱㅌ)은 아니었다. 이것은 저의 促音과

함께 다음과 같이 회복되어야 마땅하다.

- 22) 유카와(湯川)→유가와, 이키(壱岐)→이끼, 아타미(熱海)→아다미, 고토(後藤)→고또, 고치(高知)→고찌(淸音)
 돗토리(島取)→도토리, 삿포로(札幌)→사뽀로, 윗카이치(四日市)→요카이찌,
 벳푸(別府)→베뿌, 셋쓰(齋津)→세쓰, 구찬(具知安)→구찌안(促音)

요전대, 수용할 外來語의 發音은 모방적인 英語偏重을 버리고, 전통적 主體性으로 다듬어서 규범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外來語는 受容與否와 관계없이 설명의 편의상 예시한 것이나, 이 主體主義는 外來語 表記法의 측면에서도 확립할 대원칙이다. 그러나, 現行 表記法에서 여전히 原音主義를 표방한 것은 國語醇化의 차원에서 크게 유감된 일이다. 특히 그 基本原則에 규정된 1音韻 1記號, 된소리 금지 두 원칙이 우리의 主體主義를 배격하는 요소로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우리의 近代以後는 파란 많은 1세기였다. 그 전반기는 他意에 의하여 칼날을 권 격이어서 칼을 쓰지 못했고, 후반기는 칼자루를 권 격이나 칼을 쓸 줄 몰라서 역시 쓰지 못했다. 國語政策史를 회고하면서 특히 國語醇化史의 흐름에 대한 아쉬운 소감이다. 그 전반기는 그렇다 하되, 후반기에 해당하는 解放以後 오늘날까지의 醇化運動이 왜 칼을 쓸 줄 몰라서 쓰지 못한 격이라는 말인가? 결과된 現實을 보고 거슬러 그 원인을 캐면, 누구나 그와 같이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상 그 전반기에는 문제를 해결할 學者도 政策도 없었다가, 學者가 생긴 후에는 서슬이 퍼런 日帝의 탄압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후반기의 상황은 같지 않았다.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與件인데도 가능한 方法을 취하거나 적극적인 努力을 하지 못했다. 첫째, 버릴 것과 계속 사용할 것을 구분할 原則이 없고, 그 구분을 짓지 않았다. 둘째, 꾸준히 추진할 政府次원의 전담 기구나 주관자가 없었다. 그래서, 극심한 것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日語殘滓가 만연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나라 전체에 미칠 醇化運動이 몇 개인이나 民間團體의 제한된 운동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런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필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활동할 政府의 부처와 책임자인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도 도

의시해 왔다. 日本에서는 近代初부터 1 세기나 주체적인 政策을 펴서 諸
 國의 語文規範이 자리잡혔지만, 文部省 國語課에 文化廳 國語課도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역사적 상황으로서는 더 큰 國語局이라도 있어야 하
 는데, 課도 두지 않고 혼돈을 거듭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그러한 機構를 갖추고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쉽게 달성될 상
 절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
 인의 마음가짐이다. 그 意識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指導層에
 서 진심을 호소하고, 원대한 言論은 솔선해서 問題意識을 끊임없이 널리
 심어 주어야 하겠다. 수범해야 할 指導層의 진실이 없거나, 言論이 문제
 의 방향을 밝히지 않고 제기된 문제를 순간적인 흥미 위주의 論爭으로 끝
 내고 만다면, 모두의 意識은 끝없이 해매기만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伊路波(1492). 弘治 5, 活字本.
 捷解新語(1676). 康遇聖, 康熙 15, 活字本.
 倭語類解(1701년경). 洪舜明, 肅宗 27년경, 木板本.
 周時經(1897). 國문론, 독립신문 1897.9.25., 28.
 池錫永 注釋(1908). 兒學編(丁若鏞 原著) 序 1905.4., 京城: 著者.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찾기, 서울: 조선교학도서(주).
 한글전용특별심의회(1962~63). 회보 1~5, 서울: 동 심의회.
 金慶漢(1972). 當面한 國語問題 論考, 서울: 한얼문고.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서울: 高大出版部.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國語의 醇化와 教育, 城南: 同 研究院.
 문교부(1977~82). 국어 순화 자료 1~6, 서울: 문교부.
 南廣祐(1982). 國語國字論集, 서울: 一潮閣.
 문교부(1986). 외래어 표기법, 서울: 문교부.